

연천국공립어린이집

자연과 교감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두 번째 집

김태영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민선 (주)메조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57-1 현가근린공원 내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대지면적	11,452.00m ²
건축면적	597.97m ²
연면적	597.97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4.64m
주차	3대
건폐율	5.22%
용적률	5.2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패널, 고밀도 목재 패널, 외단열 시스템
내부마감	강화마루, 석고보드 위 도장
설계	김태영 · 이민선
감리	김태영
구조설계	(주)누리구조엔지니어링
기계설계	동방엠이씨
전기설계	태양이엔씨
시공	(주)해동건설
설계기간	2017. 10. 23. ~ 2018. 2. 19.
시공기간	2018. 5. 23. ~ 2019. 3. 20.
건축주	연천군청



물놀이터에서 바라본 플레이그라운드 주경



동측 진입로에서 내려다 본 전경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
어린이집은 집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두 번째 집이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상 동측 진입로에서 본 건물의 주출입구와 마중마당 주경
하 공원 내 놀이터에서 바라본 전경



상·좌
상·우
하

공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구분 짓는 우드루버와 후문
포켓가든
플레이홀2



공원에서 바라본 남쪽 파사드



© 정권지



© 정권지



© 정권지



© 정권지

상 교사실 앞 학부모 대기공간과 마중마당
 중 무빙월을 꺼내 3~4세 반 교실을 분리한 모습
 하 아이들의 눈높이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높이가 다르게 계획된 창

완공된 어린이집은 대지의 북동측 코너에 위치하여
 남쪽의 공원을 너른 마당으로 남겨두었다.
 동측 도로로부터 차량 접근로를 최단거리로 하고
 서쪽에 위치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와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공원의 바닥포장이나 수목이식과 시설물 변경 등을 최소화하였다.
 보육실을 울타리 삼아 주위를 둘러싸고 중심에
 중정인 플레이그라운드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외부공간, 아이들만을 위한 자연을 품도록 하였다.



© 2022 K

플레이홀의 폴딩도어를 열어 플레이그라운드까지 공간이 확장된 모습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신이 내려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기원한 이 속담이 지금 한국에서 흔히 인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전에 비해 영유아 세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다.

대도시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아동인구의 감소는 더 큰 문제이다. 중소도시에서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아이들을 보육·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영유아를 동반한 젊은 부모세대들이 정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집은 공교육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아 유치원이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연천 국공립어린이집’은 연천군에 몇 안 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하나로,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수해를 입은 후 지속적으로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여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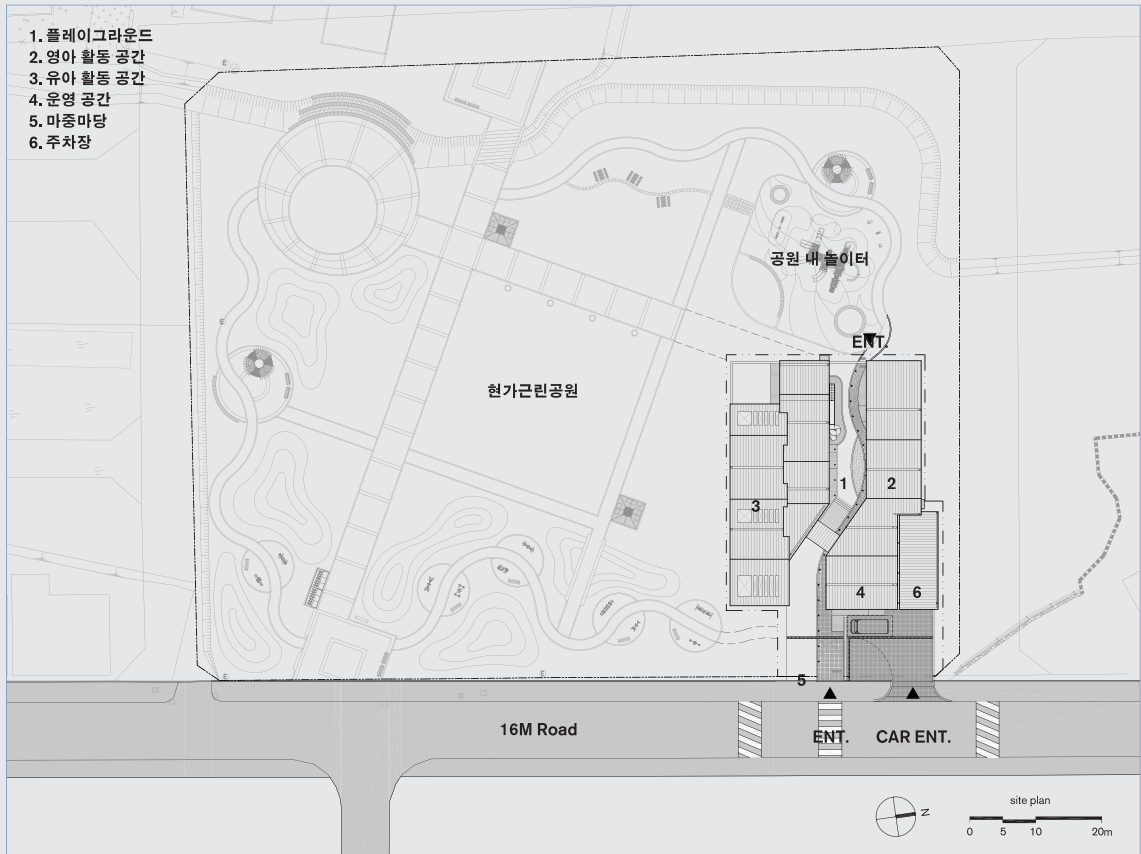
처음 만나는 두 번째 집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 어린이집은 집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동당 적정면적과 안전에 대한 최소기준들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여 보육실·유희실·포복실이라는 이름의 획일적인 보육공간과 놀이공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기준들은 어린이집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는

©정관식



상 동국대 진입로에서 내려다 본 전경
하 주출입구 전경



배치도



콘셉트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틀에 얽매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유아기는 다양한 체험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험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아이들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세상과 관계맺음의 출발이다. 아이들에게 거실과 마당의 구분, 운동과 놀이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아이들은 규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 나간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두 번째 집이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공원 속에 놓인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군청으로부터 멀지 않은 근린공원의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공원의 자연환경을 어린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설계공모에서도 공원 내 어느 위치에 어린이집을 배치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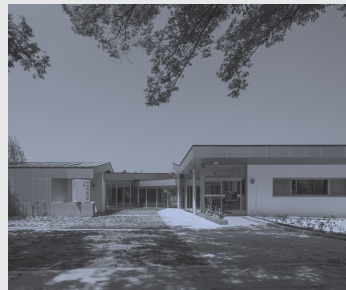
완공된 어린이집은 대지의 북동측 코너에 위치하여 남쪽의 공원을 너른 마당으로 남겨두었다. 동측 도로로부터 차량 접근로를 최단거리로 하고 서쪽에 위치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와의 연계성을 도모하였으며, 공원의 바닥포장이나 수목식과 시설물 변경 등을 최소화하였다. 보육실을 울타리 삼아 주위를 둘러싸고 중심에 중정인 플레이그라운드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외부공간, 아이들만을 위한 자연을 품도록 하였다.

놀이는 완벽한 교육, 자연은 완벽한 환경

아이들에게 놀이는 그 자체로 완벽한 교육이며,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한 환경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치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보육공간에 면하여 실내 유희공간인 플레이홀을 계획하고, 이를 실외 놀이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까지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플레이홀 1·2는 영아와 유아로 구분되는 각 보육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복도에 비해 매우 넓게 구성되어 있다. 신체활동이 필수인 아이들을 위해 날씨나 대기환경과 관계없이 실

©정광식



상 동측 진입로에서 본 건물의 주출입구와 마중마당 주경
중 물놀이터에서 바라본 플레이그라운드 주경
하 공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구분 짓는 우드루버와 후문



내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다. 경사 지붕의 공간감을 살려 자유롭게 조명을 배치하고,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가구들만 배치하여 연령 구분 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서로 교감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정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면하여 전창을 계획함으로써 하루 종일 너른 창밖을 바라보며 별을 쫓고 빗소리를 들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날이 좋을 때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뛰어나와 더 많은 놀이를 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보육실과 플레이홀, 플레이그라운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내와 실외,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느슨하게 한다. 틀에 맞춘 교육방식이 아니어도, 규격화된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들은 인공과 자연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성장할 것이다.

사계절을 담은 작은 우주

실내놀이터, 벽화마을, 숲속 오솔길, 오물조물 모래놀이터, 침병침병 물놀이터.... 플레이홀과 플레이그라운드에는 다양한 놀이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자연의 다섯 가지 요소(빛, 바람, 땅, 나무, 물)를 반영한 놀이공간에서 아이들은 직접 자연을 만지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다.

마중마당부터 플레이그라운드를 지나 공원 내 놀이터까지 연결되는 선형의 중정을 중심에 배치하고 보육실에 인접한 포켓가든을 주변에 배치하였다. 중정과 포켓가든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벚나무·단풍나무·산수유나무를 심어 아이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켓가든에는 화단과 텃밭을 가꾸어 아이들이 꽃과 작물의 성장을 돕고 그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며 자연과 생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심한 배려, 기능적인 보육공간

연령별로 분리된 보육실에는 각각 별도로 화장실과 자료실을 배치하여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교실은 하나의 화장실과 자료실, 식수대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영아 화장실 근처에는 기저귀 거치대를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샤워수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상 플레이홀의 풀딩도어를 열어
플레이그라운드까지 공간이 확장된 모습
중 플레이홀 2
하 포켓가든



상 교사실 앞 학부대 대기공간과 마중마당
중 무빙월을 꺼내 3~4세 반 교실을 분리한 모습
하 아이들의 눈높이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높이가 다르게 계획된 창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3~4세 보육실에는 무빙월과 폴딩도어를 설치하였다. 제한된 면적 안에서 원내 행사를 위한 강당을 따로 계획할 수 없어 가변적인 평면으로 구성한 것이다. 필요시 두 개의 보육실을 합쳐 통합수업을 하거나 폴딩도어를 열어 플레이홀까지 하나의 강당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원내행사가 있을 때에는 플레이그라운드 쪽에 설치된 폴딩도어까지 열어 보육실부터 플레이홀을 거쳐 플레이그라운드까지 공간을 확장하여 큰 행사를 치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보육실은 성인과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고측창을 계획하여 실내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공원 너머 멀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인이 보육실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였다. 포켓정원 쪽으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을 계획하여 정원으로의 시야를 확보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와 포켓정원에는 우드루버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면서 공원 밖을 내다보는 근거리 시선은 열어두고, 외부인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원거리 시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스스로 성장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한다. 때때로 어른들의 지나친 관심은 아이들을 정해진 틀에 가두어 버리기도 한다. 정해진 교육방식이나 규격화된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통해 자연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며, 세상을 배워 나간다. 우리는 공원 속에 놓인 작은 어린이집이 집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은 너른 마당 구석 구석을 뛰어놀며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상상하며 저마다 하나의 우주로 성장할 것이다.